

제 7 차

한일농림 수산 기술협력위 결과보고

— 축산 기술교류를 중심으로 —

- ◇ 다음은 지난 75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 ◇
- ◇ 처 일본의무성 회의실에서 있었던 제 7차 한일 농 ◇
- ◇ 수산기술 협력위원회의 결과를 입수, 축산분 ◇
- ◇ 야만을 발제 소개한 것이다. 대체로 자료교환 ◇
- ◇ 및 기술교류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본 월간 ◇
- ◇ 양계지를 통해 축산인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것이 ◇
- ◇ 니 참고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주> ◇

1. 이번 제 7차 농수산 기술협력위원회 축산분야의 한국측 대표로는 낙농과장 “유남열”, 씨가 일본측 대표로는 축산국 參事官인 “山田 續, 氏가 참석했다.

2. 한국측은 산란계 종란 3 품종과 육용계·종란 4 품종 각 100개씩과 증우의 냉동정액 2 품종 200Amp/P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측은 축산종단은 原種에 속하므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고 냉동정액은 분양에 합의 했다.

3. 기술자 교류에 있어 새마을 지도자 총 100명(수도 20, 축산 10, 원예 5, 양잠 10, 농협 20, 지도 20, 수산 10)중 축산분야에는 10명을 요청 1~2개월간에 걸쳐 파유를 요청한 바 일본측은 외교 채널(Channel)을 통한 정식 요청이 있으면 일본의 총 對韓 훈련 계획범위 내에서 검토기로 하고 인원수는 75년 對韓訓練이 86명 이므로 100명의 파유는 과다(過多)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안내상의 문제에 있어 과거의 경험상 시찰안내는 너무 많은 人員이 所要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새마을 지도자 파유에 있어서는 콜롬보(Colombo)계획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지원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점에는 도달하지는 못했다. 한편 일반기술자 교류에 있어 축산분야에 2명을 3~6개월에 걸쳐 파유시키는데 있어서도 새마을지도자의 파유문제와 같이 원칙상에만 합의

를 본바 있다.

다음 초청에 있어, 총 25명을 요청한데 대해 일본측은 비료업무, EDPS화는 일본도 연구단계로 곤란하고 林木育種은 材質育種이 일본에서도 착수단계 임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분야를 제외한 23명은 지원에 합의 했는데 축산분야는 3명을 1~3개월간에 걸쳐 초청하는데 합의했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75년 새마을 지도자 일본 농업시찰 파유 계획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농촌의 새마을 지도자에게 선진일본농업과 농촌을 시찰함으로써 새로운 영농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통해 波局効果を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일본측이 꼭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합작투자에는 한국측에 불리한 점이 많았고 농업기술자 파유에 드는 경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인원의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원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기술자의 교류는 1972년 9월 5일 제 6회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원칙적합의를 거쳐 1972년 10월 2일 한일 농림수산 기술협력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 1973년에 100명을 계획했으나 축산분야에 당초 20명에서 18명, 수도(水

稻)분야에 40명 계획에 39명을 파유해 총 97명을 파유한 바 있고 74년에는 35명(축산분야 6명)을 파유 3주내지 2개월간 시찰 연수케 할바있다.

4. 축산분야에 있어서 8월에서 10월사이에 총 10명중 인솔자 2인, 한우분야 2인, 양돈분야, 2인, 양계분야 2인, 낙농분야 2인으로 하고 연수 4주, 시찰 4주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는데 연수과정에 있어 출국전 연수 1주일간에 분야별 인솔자 책임하에 연수시찰케 하였는데 이에 따른 Orientation, 일본농정의 方向, 한국농업의 현황과 농업 정책, 새마을 운동의 목표와 수단(手段)의 강의를 받은 다음 분야별로 일본의 현황, 한국의 현황과 시책 및 전망, 국내 새마을 사업의 우수사례 및 선진지역 시찰등에 대해 인솔 책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게 된다. 한편 전문연수에 있어서는 지방축산시험장 또는 축산기업농가를 통해 유우, 비육우, 돼지, 닭의 사양관리, 유통처리, 가공 초지관리 등의 연수를 하게된다. 한편 시찰연수에 있어서는 사전연수 없이 시찰시 연수로 대체케 되는데 축산분야에 있어 낙농경영, 비육우단지, 양계단지, 양돈단지, 축산물 유통처리가공 시설등을 北海道, 神奈川, 岩手, 愛知, 埼玉, 岐阜, 群馬 등지를 다니면서 돌아보게 된다.

일반기술교류에 있어 축산분야의 총 2명중 1명은 초지조성 관리 이용등, 이 분야의 선진기술도입 활용을 위해 3개월간, 또 1명은 선진 육류등급과 기술을 검토하여 육류의 거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개월간에 걸쳐 연수키로 했는데 이는 일본 축산국에서 콜롬보프랜에 의해 경비를 부담키로 돼있다. 초청케이스의 경우 초지조성에 1명(1개월) 가금육중에 1명(3개월), 가축 호흡 대사시험에 1명(3개월)등도 역시 콜롬보프랜에 의해 축산국이 담당 하기로 되어 있다.

5. 한국측과 일본측은 축산자료를 상호 교환키로 합의한 바 일본측은 축산통계, 食肉鶏 및 流通統計, 낙농관계자료, 食肉관계자료, 사료가격변동현황, 축산관계 경제통계월보, 축산시험장 시험보고서, 국립종축장 사업보고

서, 농촌불가 임금통계축산국, 사료관계통계표(官房室調査課) 축산물 생산비조사 (통계정보부) 등을 최신판으로 2부씩 제공키로 하고 한국 측은 가축통계, 낙농현황, 사료행정평람 농사시험장 연구보고서등을 일본 정부에 제공키로 합의 했다.

그리고 이번 제 7차 위원회에서 시험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축산분야의 발표 내용을 보면 “썸바—디” 농후사료 대체연구는, 유우의 대체율 50%, 비육우의 대체율 50%, 돼지의 대체율 30% 산란계의 대체율 20%가 목표였는데 시험결과 유우는 대체율 40%로 목표에 10%미달 하였고, 비교항목별로는 비유당(日當)이 대조구 13.3kg, 대체구 13.4kg으로 0.1kg이 증가 하였다.

한우비육은 대체율40%로 목표에 10%미달 하였고,

비교항목별로는 증체량(日當)이 대조구 0.81kg, 대체구 0.79kg으로 0.2kg이 미달 되었다.

또 돼지는 대체율 30%로 목표에 도달하였고 비교 항목별로는 증체량(日當)이 대조구 0.48kg, 대체구 0.43kg으로 이 0.05kg 미달 되었다.

산란계는 대체율 12%로 목표에 8%가 미달 하였고, 비교항목별로는 산란율(%)이 대조구 91%, 대체구 88%로 3%가 미달 되었다. 이러한 시험을 추진하는데는 농후사료 대체농가 실시시험에 있어 유우, 돼지, 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파종초년도 수량 提高試驗은 생초 1,000→3,000kg/10a으로 하였다.

또 썸바—디 고품사료 및 Silage 제조 이용 시험으로 실시 하였다.

가축 질병진단과 예방약 개량에 있어서의 목표를 보면 돼지일본뇌염은 현재의 면역효과 50%에서 90%로, 생산단가는 현재의 500원에서 50원으로 목표 하였고, 닭 마르스병 백신의 국산화율 0%에서 100%로 목표하였다. 그런데 시험결과는 돼지일본뇌염 예방약 개발에 있어서 예방효과 92%로 목표보다 2%증가 하였고 생산비는 20원으로 목표보다 30원 초과 하였다.